

『梁啓超家書』에 나타난 자녀교육관과 수사적 특징 연구*

권현정**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량치차오와 『梁啓超家書』
3. 『梁啓超家書』의 주제별 내용
4. 『梁啓超家書』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
5. 『梁啓超家書』의 수사적 특징
6. 나오는 말

국문초록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는 중국 근대 개혁 운동가이자 사상가로 근대 중국 사상계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상 및 문학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그는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교육가로, ‘한 집안에 3명의 원사와 9명의 재능 있는 아이들(一門院士, 九子皆才俊)’을 길러낸 인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자녀 교육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량치차오는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기에도 그가 생각과 바람을 가서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하였다. 본고는 『梁啓超家書』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가서를 학업, 품성, 심리상태, 처세, 건강, 감정, 재정관리, 시사 등 주제별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가서를 통해 드러난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서에서 드러난 수사적 특징을 설득 3요소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6964)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전공 강사

인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량치차오, 량치차오가서, 자녀 교육, 소통,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 들어가는 말

가서(家書)는 ‘자기 집에서 온 편지 또는 자기 집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일가 친족에게 보내는 서신을 의미한다. 문집의 편집에서도 서(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배치하여 다른 편지와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

가서는 일반적으로 가족 간,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와 생활 지침을 전달하는 서신 문서로, 한 가정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체로 기능한다. 가서에는 글을 쓰는 사람의 진실한 감정이 담겨있는데 이러한 진실한 감정으로 자식을 감화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컸다.²⁾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서신과는 달리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가서를 통해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가서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³⁾

량치차오⁴⁾는 중국의 계몽사상가이자 정치가이며, 교육가이자 언론인으로 중국이 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량치차오는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을 접할 때마다 중국에 적용할 만한 것을 찾아 끊임없이 기록하였고, 자기 생각과 함께 수많은 논설과 저작으로 발표함으로써 당시 중국 뿐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와 관련된 연구는 언론, 계몽, 신민사상, 민족주의 담론, 교육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

1) 梁啓超著, 『梁啓超全集』, 北京: 北京出版社, 1999, 第21卷 家書.

2) 이경자, 「중국 명문가의 가정교육-先秦에서 清末까지」, 『中國學論叢』 Vol.35, 2012.

3) 김종석, 「家書를 통해 본 퇴계 선생의 자녀교육관」, 『퇴계학논집』, Vol.1, 2008.

4) 본 고는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량치차오(梁啓超, 양계초)로 함.

다. 이해경⁵⁾은 양계초를 중심으로 유교적 지식층이 명말 청초와 청말 민국 초 두 시기 여러 지식인들이 어떻게 천하관 위기에 대응했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향순은 량치차오의 교육사상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였고, 다른 선진 교육사상가와 비교 분석하여 량치차오 교육사상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⁶⁾ 량치차오는 여성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는데, 그는 여성교육이 여성의 마음의 수양(덕), 정신적 능력(식견, 판단력), 경제적 능력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김성은은 그의 여성교육에 관한 인식은 한말 지식인들이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현하는데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⁷⁾ 량치차오는 아동교육을 민지(民智) 계발의 일환으로 여겼으며,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한효,우림걸⁸⁾은 량치차오의 아동관과 그의 저술에 나타난 아동 교육관이 당시 중국 사회의 계몽운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영향을 준 것에 주목하면서 그가 번역하고 창작한 아동문학 작품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량치차오가 자녀에게 보낸 400여 통의 家書 중 책으로 엮어진 총 108통이다.⁹⁾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강의와 저술 활동을 주로 했던 1920년 이후의 서신이다. 주제별로는 분류하면 학업 21통, 품성 13통, 마음가짐 12통, 처세 14통, 건강 16통, 감정 24통, 경제관념 8통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량치차오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아래 몇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량치차오가 자녀들에게 보낸 서신을 주제별로 나누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학 중인 자녀들의 학업과 마음가짐, 장래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량치차오의 아홉 명의 자녀¹⁰⁾가 있

5) 이해경, 『천하관과 근대화론:양계초를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사, 2002.

6) 최향순, 「양계초(1873~1929)의 교육사상 재고찰」, 『한국교육사학회』, Vol.18, 1996.

7) 김성은, 「한말 한국지식인과 양계초의 여성교육론 비교」, 『여성과 역사』 No.21, 2014.

8) 한효,우림걸, 「양계초(梁啓超) 저술에 나타난 아동관과 아동 문학론」, 『반교어문학회』 44권, 2016.12.

9)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였고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梁思順은 詩詞연구자였고, 둘째인 梁思成은 중국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저명한 건축 역사학자였다. 셋째 梁思永은 고고학자로 중국 근대 고고학과 근대 고고학 교육자였고, 梁思忠은 포병 교관, 梁思莊은 도서관학자였다. 梁思達은 경제학자, 梁思懿은 중국 적십자에서 대외업무를 맡았고, 梁思寧은 중국 혁명에 참여하였으며, 梁思禮는 항공우주전문가로 활약하였다. 이들 중 梁思成, 梁思永은 건축학, 고고학으로 중국중앙연구원에서 梁思禮는 항공우주 전문가로 중국과학원에서 院士로 위촉될 만큼 학계에서 명망이 높았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확고한 교육 철학과 이를 실현한 자상한 세심한 소통방식에 있다고 평가되는데, 오랫동안 많은 서신을 주고받았던 량치차오와 자녀들간의 의사 소통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학의 목표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에 있다는 점에서 『梁啓超家書』를 수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그는 자녀들과 학업과 진로, 결혼, 마음가짐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감성적으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갔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수사학 이론에 근거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 3요소의 분석체계를 적용하여 가서의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0) 1891년 리후이시엔(李蕙仙, 1868-1923)과 혼인하여 량쓰순(梁思順, 長女, 1893-1966), 량쓰청(梁思成, 長子, 1901-1972), 량쓰좡(梁思莊, 次女, 1908-1986)을 낳았고, 1903년 왕구이치엔(王桂筌, 1885-1924)을 둘째 부인으로 맞아 량쓰융(梁思永, 次子, 1904-1954), 량쓰충(梁思忠, 三子, 1907-1932), 량쓰다(梁思達, 四子, 1912-2001), 량쓰이(梁思懿, 三女, 1914-1988), 량쓰닝(梁思寧, 四女, 1916-2006), 량쓰리(梁思禮, 五子, 1924-2016)를 낳았다.

2. 량치차오와 『梁啓超家書』

1) 량치차오 생애 시기별¹¹⁾ 가서의 주요 내용

량치차오는 변법자강운동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했던 1898년 부인에게 보내는 첫 서신을 시작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28년까지 부인과 자녀들에게 400여 편의 서신을 보냈다.¹²⁾ 각 서신의 분량은 일정하지 않아 수천 자에 이르는 것부터 수백 자의 짧은 서신도 있었다. 가서의 주요 수신자는 량치차오의 장녀인 량쓰순(梁思順)과 장남 량쓰청(梁思成)이었으며, 일본 망명 중에 태어나, 후에 가족의 지원으로 북미 유학을 떠났던 쓰청(思成), 쓰융(思永), 쓰중(思忠), 쓰창(思庄)이 주로 언급되었다. 쓰다(思達), 쓰이(思懿), 쓰닝(思寧), 쓰리(思禮)는 모두 191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량치차오가 살아 있을 당시에는 아직 어렸고, 중국 내에 거주하여 량치차오가 가족의 소식을 전할 때 간혹 언급되었다. 가서의 주요 내용은 시기별로 조금씩 변화하였다.

1. 량치차오 망명기(1898~1912)의 가서

1898년 량치차오는 변법자강운동 실패 후 홀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11) 량치차오의 생애는 일반적으로 제1단계 학습기(1873~1890), 제2단계 변법 활동기(1890~1898), 제3단계 망명기(1898~1912), 제4단계 정치 활동기(1912~1918), 제5단계 학술 활동 시기(1919~1929)로 나눈다.

12) 그의 첫 가서는 1898년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보낸 서신으로 보내지는 못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마지막 가서는 1928년 10월 17일 장자인 쓰청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쓰청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남은 시간에는 공부하기를 바란다. 남은 시간이 있다면 사교에 힘쓰고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좋다. (只是安心教書, 以余力做學問, 再有余力不妨在交際上稍注意, 多認識幾個人。)” 라는 말을 남겼다.

시기 그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과 이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괴로움, 타지에서의 외로움,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사랑, 가까이서 자녀들의 생활과 교육을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등을 편지에 담아 가족에게 보냈다. 그의 첫 가신은 부인 리후이시엔(李蕙仙)에게 썼다. 이 시기 그의 장녀 량쓰순(梁思順)은 5세였다. 그는 자신의 부재로 인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전했다. 1900년이 지나서야 그는 가족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함께 생활하게 된다.

2. 량치차오 정치활동기(1912~1918)의 가서

1911년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1912년 일본에서 귀국한 그는 정치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중화민국의 사법 총장을 시작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연이어 공직을 맡게 된다. 이 시기는 그의 자녀들은 대학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지식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음을 몸소 경험하면서 공직에 대한 피로감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했다.

중국 정계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구나.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이상이 전혀 맞지 않고, 모든 노력은 헛수고처럼 여겨진다.¹³⁾

그러면서 그는 자녀들에게 학업의 목표는 단순한 학문 연구가 아니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¹⁴⁾고 했다. 량치차오는 동서양을 막

13)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224. “在中國政界活動, 實難得興致繼續, 蓋客觀的事實與主觀的理想, 全不相應, 反所運動皆如擊空也。”

14)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51. “在中國政界活動, 實難得興致繼續, 蓋客觀的事實與主觀的理想, 全不相應, 反所運動皆如擊空也。”

론한 독서를 강조하면서 특히,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중국책을 읽을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그가 주장한 교육사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독서 목록과 독서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전공 이외에 다른 교양과목에도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3. 량치차오 학술활동시기(1919~1929)의 가서

1919년 이후는 량치차오가 공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하는 학술 활동 시기로, 이 시기 자녀에게 보내는 가서의 편수가 증가한다. 자녀들은 유학을 떠나 있던 시기로 가서의 주요 내용은 독서, 학업, 전공, 진로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 자신은 1920년부터 南開大學와 北京 清華學校에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자신의 학문적 열정과 고민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던 시기였다. 또한 공직 생활과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학문적 지식을 정리해 내는 시기이기도 한데, 특히, 자녀들의 전공 학습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량치차오의 건강이 점차 쇠약해지면서 서신에는 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 시기 가서에는 병세 악화와 외로움으로 인해 약해진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량치차오가 교단에서 자신의 마지막 학문적 꽃을 피우려는 열정이 느껴진다. 특히 강의와 강연을 준비하며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자녀에게 전해주었다.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느꼈던 생각들을 담담하게 전해주면서 학문적 조언과 주변인과의 관계 등 인생에 관한 깨달음을 전해주었다.

3. 『梁啓超家書』의 주제별 내용

가서에는 자녀 학업과 진로, 마음가짐과 인간관계 등 다양한 주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량치차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梁啓超家書』를 학업, 품성, 심리상태, 처세, 건강, 감정, 재정관리, 시사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업(學業)

자녀의 학업은 가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량치차오는 자녀들이 각자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기를 바랐고, 주 전공분야이외에 다양한 분야를 두루 이해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장녀 쓰순에게 보내는 서신에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제로 암기할 필요 없다고 강조하면서,¹⁵⁾ 성적보다 학문을 지속할 수 있는 흥미를 잃지 않기를 바랐다. 이는 많은 전통 가정이 엄격한 규범 속에서 시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 그는 자녀의 공부 상황을 물어보기에 앞서 자신의 강의 일정과 공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었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부 방법과 시간 관리 등을 알려 주면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량치차오는 자녀들에게 중국 고전 읽기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그의 교육관과도 맥이 닿아 있다.

나는 네가 원내에 있는 두 달 동안 《논어》와 《맹자》를 대략적으로나마 암송할 수 있도록 복습하기를 바란다. 특히 수양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은 더욱 깊이 음미하도록 하여라. 그다음에는 《좌전》과 《전국책》

15)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2. “...以後受學只求理解, 無須強記, 非徒攝生之道, 卽求學亦應爾爾也。”

을 한번쯤 훑어보도록 하라. 정신을 맑게 하고 지혜를 넓히며, 문장력 또한 향상될 것이다. 여유가 된다면 《순자》를 읽는 것도 좋으리라. 이 책들은 모두 둘째 숙부님께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순자》는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 왕선겸의 《순자집해》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¹⁶⁾

량치차오는 자신이 읽는 책과 책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자녀의 성향과 흥미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자녀들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었다. 이런 교육 방식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학문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은 자녀에 따라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고고학을 전공하는 쓰융이 전공과 관련하여 중국 탐사대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량치차오는 중국 내 고고학 탐사 관련 일에 참여하면서 탐사대의 주최와 규모, 일정 및 성과 및 전망 등을 통찰력있게 이해하였고 이를 상세하게 전하면서 쓰융이 참여 여부에 따른 장단점과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모습을 보인다.¹⁷⁾

그는 학문과 독서를 중시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민족과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기를 희망했다.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가서는 단순한 자녀들과의 소통을 넘어서 사회와 민족, 국가를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2) 품성(品性)

16)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8. “吾欲汝以在院兩月中取《論語》《孟子》, 溫習暗誦, 務能略舉其辭, 尤于其中有益修身之文句, 細加玩味. 次則將《左傳》《戰國策》全部瀏覽一遍, 可益神智, 且助文采也. 更有餘日讀《荀子》則益善. 各書可向二叔處求取. 《荀子》頗有訓詁難通者, 宜讀王先謙《荀子集解》.”

17)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량치차오는 가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마다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었다.

특히,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자녀들이 타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랐다.

난세에 살면서 고생을 해야만 버틸 수 있다. 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¹⁸⁾

그는 자녀마다 각기 다른 품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가서를 통해 개별적인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회신하도록 하여 각각의 의견을 물어보며 소통하고자 했다.

량치차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공식 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내며 자녀들은 정계보다는 학계로 진출해 영향력 있는 인제가 되길 바랐지만, 큰 사위가 외교관으로 진로를 정하자 자신의 염려를 솔직하게 전하는 한편 인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시저(장녀 량쓰순의 남편)가 외교부 직책을 맡는 것은 괜찮으나, 나 역시 사람을 통해 국무원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영사 자리는 외교 총장이 인선을 마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관직에 있으면 인격을 손상시키기 쉽고, 나태함과 교활함에 물들기 쉬우니, 결국에는 안신입명할 곳이 못 된다. 나는 요즘 교육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 시저도 이 방면에서 나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¹⁹⁾

18)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73. “生當亂世, 要吃得苦, 才能站得住, 一個人在物質上的享用, 只要能維持著生命便夠了。”

19)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112. “希哲就外交部職無妨, 吾亦托人在國務院爲謀一位置, 未知如何? 領事則須俟外交總長定人乃可商。但做官實易損人格, 易習于懶惰於巧滑, 終非安身立命之所, 吾頃方謀一二教育事業, 希哲終須向此方面助我耳。”

3) 심리 상태(心態)

량치차오는 심신의 건강을 중요시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을 고난을 겪어본 사람으로 칭하면서 자신도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임하려고 노력하며,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이를 계기로 도약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인생의 여정은 매우 길며 짧은 시간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이에 따라 조금씩 하거나 실망해서 정신적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순탄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이번 작은 좌절은 오히려 너의 덕성을 단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1년 더 준비하는 것은 학업적으로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일요일에 내가 베이징에 가게 된다면 너를 만나러 가마.²⁰⁾

량치차오는 자녀들이 혼란한 정세를 이해하고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기를 바랐다. 량치차오의 긍정적인 태도와 지적 호기심은 그의 수많은 저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비록 정치적으로 뜻을 펼치지 못했지만,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날그날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며²¹⁾, 그런 그의 일상과 심리상태는 고스란히 서신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졌다.

20)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88. “人生之旅歷途甚長, 所爭決不在一年半月, 萬不可因此著急失望, 招精神上之萎蕩。汝生平處境太順, 小挫折正磨煉德性之好機會, 況在國內多預備一年, 卽以學業論, 亦本未嘗有損失耶。吾星期日或當入京一行, 屆時來視汝。”

21)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100. “我總是抱著“有一天做一天”的主義…”

4) 처세(處世)

량치차오는 자녀들에게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한편 교유관계는 신중하게 맺기를 바랐다. 그는 활발한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찬성하면서도, 경박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가서에는 량치차오 자신이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경험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알아야 하는 점들을 자신의 사례를 통해 알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교훈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5) 건강(健康)

건강은 가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그는 자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의 안부를 묻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신에 담았다. 량치차오는 ‘국민의 체력은 국력이며, 병든 국민이 모인 나라는 병든 나라이다. 튼튼한 국민이 강력한 국가를 만든다.’라고 했다. 건강을 학업보다 우선시하도록 했고, 자녀들에게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건강을 해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가서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思成과 며느리 林徽因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모로 염려하며 보살폈다. 또한 형제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도록 하였다. 그는 자녀의 건강이 자신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신의 첫머리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서신의 분위기를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해 금주해야 하는 규칙을 아내의 생일을 맞아 한번 어기면 안 될까? 라며 투정 부리듯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과로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상황을 설명하며 의사의 말을 빌려 좋은 약보다 과로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일러두기도 했다.

열흘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것이 양호하다고 하는구나. 혈압도 매우 안정적이고, 심장과 다른 곳도 모두 괜찮은데, 단지 "적화"만 사그라지지 않는구나. 의사는 "일을 줄이는 것이 어떤 약보다 중요하다."라고 한다. 요즘 수업이 많아 쉴 틈이 없구나. 시국이 바뀌어 텐진에 머물 수 있다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텐데.²²⁾

그는 각각의 자녀 상황에 따라 감기나 체중 관리, 우울증, 산전 조리 등의 건강 상황을 꼼꼼히 챙겼는데, 그의 따뜻하고 세심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6) 정감(情感)

량치차오는 스스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너희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정이 많아 너희를 끔찍이 생각한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쯤은 편지를 보내주렴. 단지 몇 글자로 안부를 전하는 정도도 괜찮다.²³⁾

22)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148. “我十天前去檢查身體一次, 一切甚好, 血壓極平穩, 心臟及其他都好, 惟“赤化”不減。 醫生說: “沒有別的藥比節勞更要緊。” 近來功課太重, 幾乎沒有一刻能停, 若時局有異動, 而天津尚能安居, 利於養生有益理。”

23)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195. “你們須知你爹爹是最富於情感的人, 對於你們的感情, 十二分熱烈。你們無論功課若何忙迫, 最少隔個把月總要來一封信, 便幾個字報報平安也好。”

비록 서신이지만 그가 느끼는 기쁨, 슬픔, 어려움, 그리움, 쓸쓸함 등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자녀들은 때로는 진지하고, 엄격하며, 때로는 친근하고 장난스러운 문체를 통해 그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생일 축하 전보를 받았다. 내가 어디에서 받았는지 맞춰보겠니? 여기는 시에허병원 304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짐작이나 가니? 방금 의사 사가 피마자유 한 잔을 주었고, 저녁은 금식이라 하는구나. 원넷 평생 자손도 봤건만, 생일날 굶어야 한다니 우스운 노릇 아니겠니?²⁴⁾

그는 자녀들에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짧은 안부 편지라도 쓰라며 자녀들도 각자의 마음속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기를 원했고, 편지를 쓰지 않는 자녀를 언급하며 간혹 자녀들간에 경쟁을 붙이기도 했다. 이는 서신을 통한 소통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의 긴밀한 마음의 소통이 되길 원했던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자신의 건강, 국내의 여러 사정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어려움, 이에 대한 마음가짐, 주변 지인들의 근황, 여러 성취와 즐거움 등을 자세히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량치차오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길 원했다. 특히, 말년에 지인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약해진 자신의 건강 상태도 담담하게 전해주는 서신에는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솔직하고, 섬세한 그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

24)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188. “賀壽的電報接到了, 你們猜我在哪裡接到? 乃在協和醫院三〇四號房。你們猜我現在幹什麼? 剛被醫生灌了一杯蓖麻油, 禁止吃晚飯。活到五十四歲, 兒孫滿堂, 過生日要挨餓, 你們說可笑不可笑。”

7) 재정관리(理財)

량치차오는 9명의 자녀를 포함해서 20여 명의 가족과 친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으로 재정 관리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수입을 다각화하고, 투자처를 선정하는 등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자녀들이 성장하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알려주었다. 그는 학비나 생활비 등을 송금하면서 서신을 통해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금액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급여, 판권, 강의 수입, 투자 수입 등 여러 수입원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하고, 재테크나 투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자녀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올해 베이더이허에 집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 그 때문에 지금 몹시 곤궁하지만, 아직 불안한 지경은 아니다. 지금은 청화대에서 살고 있으니 매우 절약하며 지내고 있어 사백 위안 월급을 다 쓰지 못하고, 연말에 책 판매 수입이 생기면 둘째 삼촌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 게다. 조만간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 달에 오륙백 위안 수입이 생겨,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이다.²⁵⁾

채권과 이자 등 자금 투자와 관련된 자신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자녀들에게 자금 운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식을 전해주고자 하였다.

너희들이 모아둔 돈이 있다면, 칠 년 만기 장기 공채를 사는 게 좋을 거다. 이 공채의 현재 가격은 30%에 불과하고, 1.8%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은 총 세무사 안거리엔(安格聯)에게 맡기면 믿을 수 있다. ²⁶⁾

25)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230. “今年很不該買北戴河房子, 現在弄到非常之窘, 但仍沒有在興業透支。現在在清華住著很省儉, 四百元薪水還用不完, 年底賣書有收入, 便可以還二叔了。日內也許要兼一項職務, 月可有五六百元收入, 家計更不至缺乏。”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알려주며, 직접 참여를 권유하기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자 했다.

8) 시사(時事)

량치차오는 무술 번법 운동의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주의를 제창한다. 그는 세계가 자국의 존망을 건 국가 간 경쟁의 각축장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한 중국을 만들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²⁷⁾ 그는 일본 망명 시절 얻게 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념과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변화하는 현실을 읽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사상은 자녀들에게 보내는 가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는 자녀들이 강한 중국을 만드는데 각자의 역할을 해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량치차오가 가서를 많이 보내던 시기는 중국 국내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국내 정세를 알려주면서 비록 혼란한 시기이지만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거나 귀국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할 무렵 사회 기여와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량치차오는 스스로 자신의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자녀들과 공유함으로써 사회인으로 모범이 되고자 했다.

26) 梁啟超著, 『梁啟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206. “你們攢下那幾個錢, 最好是買七年長期公債。此項公債現時價格不過三折余, 計可得一分八厘以上之利息, 其還本付息由總稅司安格聯經理極穩實。”

27) 이혜경, 『친하관과 근대화론: 양계초를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사, 2002. p.193

4. 『梁啓超家書』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의 특징

1) 친화적 소통

량치차오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서신은 대화체의 다정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정함은 호칭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데, 서신의 주요 수신자인 큰 딸 쓰순(思順)과 큰아들 쓰청(思成)에게 뿐만 아니라, 서신 속에 언급되는 다른 자녀들 각각의 친근한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보배들(寶貝們), 우리 아가 쓰순(寶貝思順), 크고 작은 아이들아(一群大大小小的孩子們), 좡좡(庄庄)을 비롯해 막내 량쓰리는 라오바이비(老白鼻)²⁸라고 불렀다. 장녀인 쓰순을 함께 지내는 어린 자녀들(小寶貝)과 비교해 큰 귀염둥이(大寶貝)라 부르며,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호칭도 초기에 자신의 호인 인빙(飲冰)을 잠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버지(父親)이 아닌 아빠(爹爹 혹은 爹)로 표현하며 친근함을 드러낸다. 그의 이런 다정함은 그가 하는 조언과 가르침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 경험 중심의 소통

자녀들이 대부분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독서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그 자신 또한 다독과 다작을 한 문장가이자 교육자로서 자녀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고전과 서양의 지식을 고루 습득하도록 하였다. 그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방법으로 독서하는지를 소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의 가르침은

28) 白鼻는 영어 Baby의 음역으로 장녀인 량스순의 아들을 小Baby라고 불렀기에 구분하기 위해서 老Baby라고 불렀는데, 후에 한자로 老白鼻라고 함.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곳을 방문할 때 이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조언했다. 량치차오는 그가 접하는 학문이나 문물 등을 모두 기록에 남겼다고 할 만큼 많은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그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여행하며 관찰하고 느낀 생각들을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으로 남기는데, 건축을 전공하는 장남 쓰칭(思成)이 결혼 후 유럽 여행을 준비할 때 그는 이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쓰칭에게 상세하고 합리적인 여행경로와 여행계획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칭에서 여행에만 그치지 말고, 보고 느낀 바를 기록으로 남겨 후에 연구의 자료로 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자녀의 관심 분야를 이해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행) 중간에 시간과 돈을 좀 들여 튀르키예에 들려 회교의 건축과 미술을 살펴 보고, 터키 혁명 이후의 정치를 함께 알아보기를 바란다. 이 점에 관해, 이해하기 쉬운 책 한두 권을 구해서 돌아오면 내게도 알려주기를 바란다.²⁹⁾

3) 개방적 소통

그는 비록 정치와 학문에 몸담으면서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지 못했지만 매 순간 자녀들을 생각하고 있고 보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해 전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교류하기를 바랐고, 서신을 보내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좀 더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자녀들과 소통했다. 강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기대와 어려움,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 등을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털어놓고 가족이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상

29)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38. “中間最好能騰出點時間和金錢到土耳其一行, 看看回教的建築和美術, 附帶著看看土耳其革命後政治。關於這一點, 最好能調查得一兩部極簡明的書回來講給我聽聽。”

호 간의 관심과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서로 이해하고 위로받기를 바랐다.

4) 공감 기반의 소통

그는 자녀들의 학업 이외에 건강, 진로, 결혼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세심한 관심과 지지는 자녀들이 성장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보내는 서신에 대해 자녀들이 회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별한 일이 있어 야 보내는 서신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감성을 함께 나눠 주기를 바랐다. 이는 서신이 자신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닌 부모 자녀 간의 상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회신받았을 때의 반가움과 기쁨을 솔직하게 전하기도 하고, 회신을 보내지 않은 자녀를 지목해서 서운함을 내비치고 하였다. 그는 서신을 통해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더라도 상호 관계와 유대감을 돈독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5) 의사 존중의 소통

그는 자녀가 유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자녀와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소통하였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결정하고 통보하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자녀의 의견을 듣고 자녀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며, 이를 통해 삶을 스스로 고민하고 개척해 나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량치차오는 혼란스러운 국내의 정세와 사회적 상황을 자세하게 자녀들에게 전했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를 바랐다.

5. 『梁啓超家書』의 수사적 특징

가서는 가족과 자녀들과의 비공식적 서신이기 설득에 적용되는 수사학적 요소들도 일반 연설과는 구별된다. 『梁啓超家書』는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담긴 서신체 담화로 신뢰와 감정, 이성의 설득 요소가 정교하게 얽혀 있어, 이를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세 가지 설득 방식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이며, 청중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 화자가 지녀야 할 성격’을 말하며, 파토스는 ‘청중의 마음 상태나 반응, 즉 심리적 경향, 욕구, 정서’를 포괄하며, 로고스는 ‘논지 자체의 설득력으로 논증 또는 논거 방식들’을 의미한다.³⁰⁾

1) 에토스(Ethos)

에토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량치차오는 아버지이자 사회와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계몽사상가로서 자신이 일생을 걸쳐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도덕적 모범을 서신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하였다.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자녀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개인적 성품이나 지혜, 호의 등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그는 가서를 통해 이를 많이 표현했다. 서신 속에는 건강과 안부를 묻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사회적 활동과 지적 탐구, 가치관 등을 담아내면서 자녀들이 신뢰와 존경심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해외에 유학하는 기간에 학업과 진로³¹⁾, 마음가짐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량치차오의 긍정적인 마음가짐³²⁾과 다양한 경험,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지혜를 담은 그의 가서는 강력

30) 박성창, 『수사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p46.

31)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46. “爲你前途立身計, 東北確比清華好。”

한 설득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파토스(Patos)

파토스는 로고스에 비해 감성적인 차원의 설득 요소라는 점에서 에토스와 구별하기 쉽지 않다. 파토스는 모든 인간의 감정적 정서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 수사적 설득이 모두 해당하며, 청중의 정서적 반응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중이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욱 연결된다. 량치차오는 서신을 통해 먼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였고³²⁾, 자녀들에게도 자신에게 걱정과 고민, 심리 상태 등을 표현해 주기를 요구했다. 그는 친근하고 애정 어린 표현들을 많이 썼으며, 유머와 은유 등 활용하여 감정적 유대를 강화하였다. 그가 공직에서 은퇴한 후 학술 활동에 전념하던 시기의 서신에는 량치차오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의 건강과 치료 과정, 마음 상태에 대한 표현과 가족에 대한 애뜻함은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로고스(Logos)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토스와 파토스가 감성적 설득 요소라고 한다면 로고스는 논리적 설득 요소라 할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서신은 애뜻한 마음이 감성적인 표현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학업이나 진로에 관한 결정, 처세 및 재정 관리를 비롯한 투자와 자금 운용 등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할 때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표현이 많았다. 그는 자녀들이 당면한 문

32)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38. “這回失望並不必灰心, 因為我和哈丁談話的結果又得了新希望…”

33)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191. “我實在想你們, 想得很, 借這個機會來看你們一道, 最好不過…”

제에 관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思成³⁴⁾과 思永³⁵⁾의 진로 상담 과정에서 국내외 시대적 상황과 전공의 전망, 관련 기관의 역할, 평판 및 향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조언하면서 자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비록 반대하는 견해가 있더라도 여러 고려해야 할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자녀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였다. 량치차오는 베이다이허(北戴河)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 접 근성, 가격, 활용도, 기타 부대 조건 등을 제시하며 구매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는데³⁶⁾, 특히, 자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주장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했다.

6. 나오는 말

량치차오의 가서는 자녀에 대한 당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기 생각과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기반성적 고백을 담아낸 자서전의 성격도 가진다. 그는 어려움 없이 지내던 아들이 유학길에 오르자 작은 좌절은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길 바라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기 비판적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신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랐다. 스스로 자신의 시행착오에 대해 자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자신과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고, 잘못했어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어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梁啓超家書』의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망명기에는 정치 개혁 실패에 대한 자책과 신변의 불안함, 조국을 떠나 망명하면서 고국에 대한

34)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21. “作一度冒險吃苦的旅行”

35) 梁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44. “多少留學生回來找不著職業, 所以機不可失。”

36) 啓超著, 『梁啓超家書』, 中國: 中國友誼出版公司, 2012. p210. “我們若轉賣也不致虧本”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애뜻함,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이 녹아 있다. 정치 활동기에는 그가 공직에 몸담은 시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 가족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었지만, 자녀들의 학업을 직접 돌볼 수 없어 인성교육을 비롯해 독서와 학업, 진로 등 자녀의 모든 면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가서를 통해 전한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은 생생한 사례가 되어 자녀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활용된다. 자녀 중 학업에 부적응하거나 졸업 후 진로로 걱정할 때 그는 자녀 스스로 자신의 흥미를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사명감, 애국심 등을 강조함으로써 단단한 내면을 갖추도록 하였다. 학술 활동 시기에는 공직에서 은퇴한 후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하는 시기 그는 지혜롭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으로 자녀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서슴없이 나눔으로써 자녀들과 적극적이고 풍부한 정서적 교류를 한다.

량치차오의 가서는 지시나 명령, 권위적인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나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자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친화적이고, 개방적이며, 경험 중심의 공감 기반 소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제와 상황에 따라 설득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녀들의 이해와 공감, 설득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梁啓超家書』의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의 가서에 등장하는 상황에 대한 중국어 표현을 고급 수준의 작문 교육에 응용하여 안부 묻기, 나의 상황 소개, 제안, 응원, 설득 등 다양한 상황 표현을 훈련하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그의 서신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을 활용하여 중국인과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우리 사회도 부모 공동양육이 활성화되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자녀 교육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이 자녀의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목받는 가운데 량치차오의 자녀교육관과 그와 자녀 간의 소통방식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남기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 주제별 편지쓰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서신을 통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구자익, 『양계초와 교육』, 원미사, 1998.
- 권혁석, 「家訓을 통해 본 中古시기 士人들의 修身과 處世」, 『중국어문학』 제61집, 2012.
- 김성은, 「한말 한국지식인과 양계초의 여성교육론 비교」, 『여성과 역사』 No.21, 2014.
- 김종석, 「家書를 통해 본 퇴계선생의 자녀교육관」, 『퇴계학논집』 Vol.1, 2008.
-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가족애의 한 양상」, 『濫知論叢』 31집, 2012.
- 송경애, 「명·청 시기 가정교육 연구」, 『中國學研究』 No.77, 2016.
- 심정렬, 「안씨가훈의 구성과 교육론」, 『漢字漢文教育』 Vol.16, 2006.
- 안지추, 유동환 옮김, 『顏氏家訓』, 홍익출판, 2008.
- 이경자, 「중국 명문가의 가정교육-先秦에서 清末까지」, 『中國學論叢』 Vol.35, 2012.
- 이은영,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동방한문학』 65집, 2015.
- 이승원, 「양계초의 신민교육사상 연구」, 고려대 박사 학위논문, 1995.
- _____, 「韓末 教育에 미친 梁啓超의 영향 연구」, 『한국교육사학』 18집, 1996.
- 이장우, 「家書를 통해 본 退溪의 家族관계 및 人間的인 면모」, 『퇴계학논집』 No.11, 2012.
- 이혜경, 『친하관과 근대화론: 양계초를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사, 2002.
- 최향순, 「양계초(1873~1929)의 교육사상 재고찰」, 『한국교육사학회』, Vol.18, 1996.
- 천성림, 「梁啓超와 『女子世界』 -20세기 초 중국에서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중국근현대사연구』 18, 2003.
- 崔香順, 「梁啓超(1873-1928)教育思想의 第一期和 第二期 教育目的觀之比較研究」, 『韓國教育問題研究所論文集』 Vol.- No.8, 1993.

- 티모시 보셔스, 이희복, 차유철 역, 『수사학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H.F.Plett, 양태중 옮김,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동인, 2002.
- 陳汝東, 『當代漢語修辭學』, 北京大學出版社, 2004.
- 徐剛, 이주노, 김은희 옮김, 『양계초: 중화 유신의 빛』, 이끌리오, 2008.
- 趙永進, 雷芳, 「梁啟超의 家庭教育思想探析」, 『青海民族學院學報(教育科學版)』, 2003(01).
- 利焯, 「梁啟超의 “趣味主義”與家庭教育」, 『世紀橋』, 2010(09).
- 趙惠娟, 「梁啟超家庭教育思想中的品格教育思想初探」, 『才智』, 2011(11).
- 劉曉飛, 廉武輝, 「從“家風”建設看梁啟超의 “梁氏家教”」, 『教育文化論壇』, 2016(02).
- 席志武, 「從《梁啟超家書》看梁啟超의 父親形象及其對當前家風教育的啟示」, 『現代教育科學』, 2019(12).

Abstract

A Study on the View of Children's Education and Rhetorical Characteristics in the letters of Liang Qichao

Kwon, Hyun Jung

This study examines the family letters of Liang Qichao, a prominent figure in China's modern reform movement and an influential educator who advocated for national salvation through education and the cultivation of new citizens. Liang Qichao is renowned for raising three academicians and nine talented children, and his parenting philosophy has garnered considerable scholarly attention. During periods of separation when his children were studying abroad, he maintained communication through letters. This paper analyzes selected letters organized thematically, addressing aspects such as academics, character development, mindset, conduct, health management, emotional guidance, and financial principles. Additionally, it explor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his communication style with his children as reflected in the correspondence, while investigating the rhetorical strategies employed in the letters through Aristotle's three modes of persuasion: ethos, pathos, and logos.

Keywords : Liang Qichao, Family Letters of Liang Qichao, Children's Education, Communication, Aristotle's Rhetoric

투 고 일 : 2025. 7. 10. / 심 사 일 : 2025. 7. 15.~ 2025. 8. 15. / 게재확정일 : 2025. 8. 20.

